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트마리
파견대학	알고마대학교	기간	2019.01.16.-2019.02.04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수세인트마리에 있는 알고마 대학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수세인트마리는 토론토에서 비행기로 약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있고 강 건너편에 미국이 보일 정도로 미국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알고마 대학은 생각보다 건물이 컸고 시설이 깨끗했으며 학교의 모든 건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친절했고 다른 나라 유학생들을 마주치는 기회가 많아서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듣기와 문법 테스트로 레벨테스트를 하여 Advanced반과 Intermediate반으로 나눕니다. 수업은 Grammar, Oral presentation and vocabulary building, Listening through media, Reading and cultural studies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사님들은 모든 수업에 항상 열정이 넘치셨고 친절하셨으며 학생의 참여를 중요시하셨습니다. 수업은 주로 프린트물로 진행되었고 oral presentation and vocabulary building 수업은 Lunar New year celebration 때 한국문화에 대해 발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고 Reading and cultural studies 수업 때는 과거 캐나다의 residential school과 관련된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제로는 자기주장 2가지 적기, 1분 이내 발표문 준비하기 등과 같이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주셨으며 수업준비를 따로 해갈 것이 없었습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수세인트마리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어서인지 눈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공식적인 활동으로는 스케이팅, 개썰매타기, 스키, 알파카 농장 방문, 하키경기관람이 있었습니다. 이 활동들을 하는데

	있어서 추가비용은 없었고 스키 탈 때 스키바지, 장갑, 부츠가 필요했습니다. 스키바지랑 장갑은 홈스테이 집에서 빌려주었고 부츠는 가져갔습니다. 수세인트마리에 눈이 와서 3주 동안 거의 매일 부츠를 신고 다녔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여러 센터를 방문하여 윗놀이, 종이접기로 한복 만들기, 한글로 자기이름쓰기 등과 같이 한국문화를 알리고 체험하는 봉사활동을 하였고 점심으로 다 같이 스시를 먹으러 갔으며 K-lunch 활동으로 점심에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음식을 준비하여 외국 인천구들과 같이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홈스테이 가족과도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김이랑 참치 캔을 가져가서 주먹밥이랑 계란말이를 저녁으로 만들어드렸고 친구홈스테이가족과 별장을 놀러가거나 썰매를 타러가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3주 동안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하였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쌓았고 밖에서 하는 활동을 많이 하니까 핫팩이랑 따뜻한 옷 꼭 챙기세요.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수세인트마리의 겨울은 영하 30도 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 만큼 굉장히 추우며 눈이 많이 내립니다. 밖으로 나가면 머리카락이 하얗게 얼거나 코 안이 얼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오고 쌓여있기때문에 방수가 되는 부츠를 꼭!! 챙기시고 핫팩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수세인트마리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다라는 말을 듣고 갔는데 그 말에 격하게 공감할 만큼 친절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웃으며 인사하고 도와주는 등 다들 친절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해가 빨리 저서 금방 어두워지기 때문에 밤에 밖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무서웠지만 걱정되는 일 없이 안전하게 집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0)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저는 엄마, 아빠, 일본인 유학생 한명과 함께 살았습니다. 집과 지내는 방은 엄청 깨끗하고 좋았으며 분위기는 자유로웠습니다. 또한 홈스테이 부모님께서 마트 가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이 있냐고 물어보시고 필요한 재료나 먹고 싶은 간식, 과일을 가득 채워놓으셨습니다. 샤워나 빨래는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었으며 3주 동안 지내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었

	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많이 얘기하고 편하게 해주셔서 금방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집에서 쉴 때 거실에서 같이 티비보고 오늘은 뭘 했는지와 같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0) 외부식당 ()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은 과일이나 요거트, 시리얼, 와플에 메이플시럽을 발라서 먹었으며 점심은 제가 먹고싶은걸로 싸갔습니다. 함께 마트에 가거나 가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봐주셔서 아침과 점심에 필요한 재료나 음식을 사 주셨습니다. 점심으로는 치킨텐더나 식빵을 싸가거나 한국음식이 그리울 땐 집에 있는 쌀로 밥을 하고 한국에서 가져온 반찬을 가져가거나 컵밥이나 라면을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점심마다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서 나눠 먹었으며 저녁에는 집에 일찍 들어가는 날에는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먹거나 학교 끝나고 놀다가 밖에서 친구들과 먹기도 하였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아침에 홈스테이 엄마가 학교에 데려다주시거나 버스를 타고 등교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버스를 이용하였으며 버스 타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학교에서 첫날에 알려주십니다. 학교에서 한 달 동안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bus pass를 나눠줘서 그걸로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버스는 평일에는 30분에 한 대씩, 주말에는 한 시간에 한 대씩 운행하여 시간을 놓치면 오래 기다려야합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내려야할때 정류장을 빠르게 지나치거나 정류장을 안내하는 방송이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저는 항상 구글맵을 보면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738,600	출국 전 사전 납부
외식, 쇼핑 등	약 600,000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무조건 장갑, 목도리, 부츠, 핫팩, 귀도리 꼭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출국하기 전에 홈스테이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메일 확인 잘 하시고 홈스테이 정보 나오면 꼭 연락하셔서 필요한 것들 준비하세요. 그리고 홈스테이 가족 처음 만났을 때 줄 선물을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고 가서 한국음식을 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시기 때문에 미리 뭘 할지 생각하고 재료를 준비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재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구글맵을 사용하거나 홈스테이 가족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아야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필요하고 유심 칩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한국음식이 많이 그리기 때문에 컵밥, 라면, 참치캔, 김과 같은 한국음식을 챙겨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 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수세인트마리에서의 3주는 절대 잊지 못할 꿈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캐나다에 가기 전에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홈스테이에 적응을 못할까 봐 많은 걱정을 했는데 홈스테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제가 말을 버벅거리어도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모르는 건 알려주면서 대화를 잘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3주 동안 한국에서 해보지 못한 많은 경험을 하였으며 다양한 나라의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습니다. 3주라는 시간동안 영어실력이 월등히 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을 대하는데 있어서 긴장감이 많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겼으며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데 동기부여가 크게 되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스케이팅	Solo trattoria
	
일본인친구들과 station mall	버스 기다리면서
	
알파카농장	하키경기